

성모님의 마음을 담은

2018

성모기사

08



8월 봉헌기도



원죄 없으신 어머니 동정마리아님!
어머니께서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저를 원하시니
언제나 제 자신의 모든 것을 어머니께 봉헌하며
오늘 이 봉헌을 새롭게 합니다.

오, 저의 여왕, 교회의 어머니시여!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어머니의 사명에 제가 충실히 협력하기를
오로지 당신께 청합니다.

오, 원죄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여!
오늘 제가 바치는 기도와 활동과 희생을 즐겨 받으시어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성인의 열정과 사랑을 본받아
저희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하며 열렬한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는 저희와
어머니의 도움을 외면하는 이들,
특별히 교회를 적대시하는 이들과
어머니께 맡겨진 모든 이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성모님의 밤 / 향기로운 꽃다발	02
8월을 시작하며 김용기	06
프란치스칸 영성 - 평화 최우식	11
사랑의 순교자 김종국	17
말씀묵상 최정원	22
몰카 박영철	24
기차 안에서의 인연, 그리고 히말라야 신재희	26
나가사키에서 수도생활하기 이신형	36
유학 생활의 시작, 세리피쿰 권정대	41
함께하는 이모저모	50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 15:13)



그림 : 진동길 마리오 신부

성모님의 밤 / 향기로운 꽃다발

대구지구



성모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귀부인'이란 뜻인 '마리아'란 이름에 걸맞게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하느님으로부터 더욱 큰 은총을 입은 이로서 가장 높은 공경의 지위를 갖습니다.



가톨릭교회는 5월을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는 '성모성월'로 정했습니다. 성모성월신심의 핵심은 온 세상을 통하여 성모님께 명예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성모성월 신심은 교황님들께서 강조하시며 권하는 성모신심 중의 하나입니다. 비오 12세 교황님은 이 신심을 자주 언급하시며 독려하셨고, 당신의 교서인 “Medi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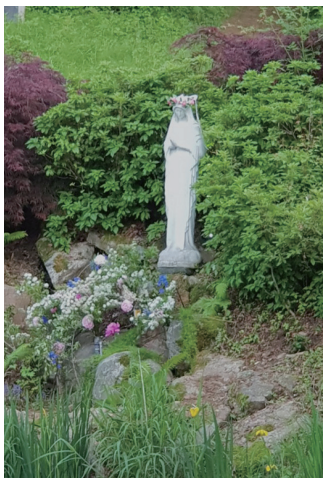
Dei”에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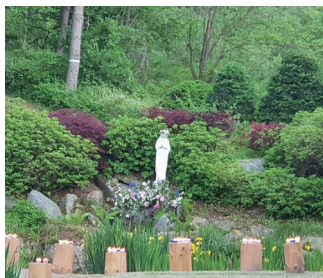
“엄격한 의미에서는 거룩한 전례에 속하지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전례적 예배 행위로 간주할만한 신심이다. 이것은 성좌와 주교들이 누차에 걸쳐 승인하고 극구 찬양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6세 교황께서는 1965년의 짧은 교서에서 성모성월은 ‘평화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달’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이 신심을 더욱 열심히 실행하도록 촉구하시면서, “성모님을 통해서 기쁨과 위안을 얻으며”,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영예를 얻고, 신자들은 영적 이익으로 더욱 풍성하게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양평지구





성모기사회원들은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각 지구 성당 및 수도회에서 준비한 ‘성모님의 밤’에 참석했습니다. 성모기사회 본부는 서울지구와 함께 한남동 수도원에서 5월 25일 금요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충실한 자녀로서 세상의 악과 싸우는 성모기사회원이 되겠다”고 봉헌 갱신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루카 1,48-49)



서울지구



8월을 시작하며

김용기 대간안드레아

어느 더운 여름날, 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어느 수녀님과 대화를 주고받던 중이었습니다. 그 수녀님께서 문득 저에게 “수사님! 로마서 8장 35절의 내용 아시죠?”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언뜻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녀님께서 그 내용을 제게 읽어주셨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중간쯤 듣다가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내용은 성무일도의 성경 소구에도 등장하는 꽤 잘 알려진 내용이라서 저도 금방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건지...?” 그러자 그 수녀님은 “거기에 빠진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뭘까 생각하고 있는데, 수녀님은 빠진 내용을 집어넣어서 다시 읽어주셨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거기까지 읽으시고는 “더위입니다!”라고 덧붙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참 웃었습니다.

웃으면서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여름은 시작되었지만, 8월은 더위의 한가운데에 있는 느낌입니다. 덥기도 하지만, 습도도 높고, 그래서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잘 잡히지 않고, 일하면서도 쉽게 지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너무 덥거나 추운 지역 출신의 성인들이 별로 없는 것도 삶의 조건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뜨거운 달이지만, 그 안에서 조금은 다른 뜨거움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열정입니다. 성모성월은 5월이지만, 8월에도 저는 성모님이 먼저 생각나곤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성모님의 승천 축일이 8월 15일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우리 조국이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이기도 합니다.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주보 성인으로 모셨던 한국(조선) 천주교회가, 성모님의 승천 축일에 해방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우리 민족이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해 주는 하느님의 섭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8월은 성모님을 떠올리는 또 다른 성모님의 달입니다.

또한 이 강론을 읽으시는 성모기사회원이라면 성모님 외에 누군가를 떠올리시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다른 누구보다 성모님을 사랑했던 콜베 신부님의 축일이 8월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구나 콜베 신부님의 천상탄일은 성모님의 승천 축일 전날인 8월 14일에 위치해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모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범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자 했던 분이셨기에 성모님의 축일과 닿아있는 것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수도회에 입회하기 전에는 콜베 신부님에 관해서 거의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쯤에, 우연히 학교도서관에서 콜베 신부님에 관한 만화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네’ 하면서 생각한 정도로 지나갔는데, 시간이 흘러 성모기사회에 가입하게 되었고(수도회 입회 전, 고등학생 시절에 기사회에 가입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콜베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끈벙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입회해서, 콜베 신부님의 후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스쳐가듯 만났던 인연이, 제가 이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이끌어준 섭리인 듯 생각합니다.

청소년기에, 그리고 수도생활을 시작해서 양성기를 보내던 무렵의 저를 돌아보면, 지금보다 더 열성적이고 순수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교만함이나 건방진 모습

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그런 모습으로 성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콜베 신부님에 관한 제 생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콜베 신부님에 관해 대충만 알고 있던 저는, 콜베 신부님은 운이 좋으셨던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숨을 가치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순간이 주어지신 것이 그분이 순교하실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한 순간에 끝날 수 있는 것이니까, 오랜 기간 이어지는 고통보다는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는 생각마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총이 내게도 주어진다면 좋겠다는 교만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제가 콜베 신부님의 생애와 신앙에 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저 자신의 모습이나 삶에 대해 성찰해볼 기회를 갖게 된 후에야 그게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진 착각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삶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또한 순교를 요구하는 순간에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삶의 매 순간 안에서, 자신을 죽이고 신앙을 따르는 무수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도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짧은 생각들이 지금

돌아봐도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런 제 착각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도 역시 은총일 것입니다.

여름의 한가운데인 8월입니다. 하지만, 성모님과 콜베 신부님을 통해서 삼복더위보다 더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배웁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에 기꺼이 협력하시고, 당신의 삶을 봉헌하신 성모님, 그리고 그 성모님의 모범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목숨을 던지셨던 콜베 신부님을 떠올려보면서 우리도 뜨거운 신앙으로 더위를 이겨내는 8월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프란치스칸 영성 - 평화

최우식 프란치스코

과거에도 프란치스칸 가족 안에 정평창보(정의·평화·창조질서보존)위원회가 있었지만, 실제로 정평창보 문제가 부각된 것은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이다. 그 이전에는 형제들 상호 간(성직 형제와 평형제 간)에 보이지 않는 위계질서가 작용했고, 잘못된 형제들에게는 차별이 있을 정도로 정의 혹은 평화와 관련이 먼 요소들이 있었다.

그랬던 것이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정평창보 문제를 많이 다루는 오늘날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이 과정 자체를 프란치스칸적 정평창보의 개념이라 이름 짓는 것은 무리다. 우리는 프란치스코가 어떻게 생각했고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았는가를 먼저 찾아내야 한다.

통합의 결실로서의 평화

평화는 인간이 하느님을 떠나지 않고 하느님과 함께 할 때만 유지된다. 그러므로 누구나 평화를 원한다면 하느님을 떠난 잘못을 뉘우치고 하느님께로 귀의해야 한다. 이것이 제2의 창조이고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평화는 하느님과의 화해와 생활의 회개 성격을 강

하게 나타낸다. 그리고 평화에 대한 이해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해와 직결된다.

프란치스코가 지녔던 평화는 하느님 체험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가난의 삶으로부터 그 바탕을 찾을 수 있다. 프란치스코의 평화는 ‘하느님은 모든 것’이 시며, ‘모든 것은 다 선물’이라는 강한 의식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프란치스코처럼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선물이라고 프란치스코 성인이 의식한 것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산이 유럽인들의 DNA 속에 전해져 내려온 것인지도 모른다.

이집트인들은 이집트 나일강 가에서 수천 년을 살면서 먹을 것을 주는 것, 나일 강가에 꽃이 피게 해주는 것, 바로 태양을 섬겼다. 그들에게는 태양이 신(Ra)이었다. 다음 그림을 보면 기원전 1330년경 <그림 1>에서 태양신으로부터 손들이 퍼져나오는 것과 기원후 <그림 2>에서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것이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란치스코에게는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 소유한다는 것은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질투, 모독하는 것이었다. 그는 하느님의 선물



그림 1
《파라오 투탕카멘과 그의 아내》, 기원전 1330년경



그림 2
펜타코스트

자기 것으로 하는 사람은 하느님께 아무것도 돌려드릴 것이 없기에 십자가를 돌려드리게 된다고 하였다.

평화란 하느님의 것인 모든 선을 홀로 선택하신 하느님께 돌려드리고, 이로써 하느님의 질서가 회복될 때 이루어진다. 하느님의 질서란 하느님이 피조물로부터 마땅히 받으셔야 할 찬미와 감사를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하느님이 일하셨으니 그 대가를 받으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존엄한 존재이기에 서로가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만 한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식탁에는 자주 나오고 절대로 구걸하러 나가지 않는 형제를 파리 같은 형제라 책하였다.¹ 그

주1) “파리 같은 형제여, 당신의 길을 가시오. 당신은 하느님의 일은 하지 않고 형제들의 땀만 빨아먹으려고 합니다.” (2첼라노 75)

형제는 다른 형제에게 자기 몫까지 구걸해 오라고 하는 것이다. 마음씨 착한 형제라면 전에 자기 몫까지 구걸해준 형제에게 고생을 많이 했으니 좀 쉬라하고 자기가 그 형제의 몫까지 구걸하러 나갈 것이다.

세상에는 다양한 차원에서 하느님의 평화를 건설하는 사람이 많지만, 프란치스코의 평화는 그의 고유한 사명이었다. 그는 하느님의 선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평화를 전달했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참으로 좋으심 즉, 선하심을 강조하였다. 성인의 신심은 사랑이신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어떤 것에도 만족함 없이 창조주께 모든 것을 돌려드릴 필요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하느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알고 평화롭게 산 프란치스코는 창조된 어떤 것들에 집착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상황이 프란치스코에게는 주는 자로서 '위대한 자선가'로서의 하느님을 말하는 것이었다. 자신을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프란치스코는 이를 절실히 체험함으로써 결국 가장 위대한 하느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으로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가난을 살 수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계속되는 기쁨으로 넘쳤으며, 자신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인식하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그분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에 늘 감사와 찬미를 드렸다.

사랑이신 하느님을 늘 가까이서 체험한 프란치스코의 평화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경이로움과 친교로 반영되었다. 프란치스코에게 비친 피조물은 그저 단순한 창조물이 아니었다. 프란치스코는 모든 피조물 안에 현존하는 질서와 조화를 느꼈으며, 창조된 존재들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권능을 보았다.

피조물에는 창조하신 분의 표가 새겨져 있으며 그분의 사랑, 관용, 그리고 그분의 모든 특성이 들어있음을 프란치스코는 느꼈다. 또한 피조물을 있게 한 근원 및 기원이 한 분 하느님이심을 인식하였기에 모든 피조물을 형제 혹은 자매로 불렀다.

프란치스코가 “나의 하느님, 나의 모든 것이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성 다미아노 성당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였다. 즉, 그리스도가 걸으신 길을 특별한 방법으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한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께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 보나벤투라가 〈하느님께로 향하는 영혼의 여정〉에서 적합하게 묘사한 바와 같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신(神)-인(人)으로서의 자신의 삶과 죽음에서 예수는 인간을 위하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수용력을 간파하였다. 따라서 프란치스코는 관상을 통해서 하느님과 일치하려 하였으며, 기쁨에 넘치는 아낌없는 사랑의 발로를 공유하기를 원하였다. 그리하여 프란치스코는 마음의 고요, 진정한 평화를 체험하였다.

프란치스코는 기도를 드린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기도로 변화시켰으며 매우 열성적이고 엄격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의 관상과 생활을 통합시켰다. 그의 내적 평화는 증거와 봉사로 흘러나왔으며, 그는 하느님의 메시지 즉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평화의 하느님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사랑의 순교자

김종국 요셉

‘사랑의 순교자’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성인이시여.

기적의 메달이 달린 타우십자가를 쥐고
성인의 삶을 묵상하는 요즈م

성인께서 살아가신 영웅적 삶에 가슴이 벅차올라
도무지 근로 옮길 생각이, 엄두가, 나질 않아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순교하신 77년 전 8월로
영상이 돌아가는 순간 입이 벅어리 되고,
근로 옮기는 손가락이 까딱하지 않아요

이제 겨우 폴란드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는
라이문도의 소년 시절이 떠오르네요

“하느님의 어머니, 제가 무엇이 될까요?”

“순결을 나타내는 흰색 관과 순교를 나타내는 붉은색 관 가운데
어느 관을 갖고 싶어요?”

“둘 다 제게 주세요”

빙그레 웃으시며 사라지는 성모님은
그때부터 마음의 친구, 소년의 여왕, 주인이셨어요?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다른 말씀은 안 하셨어요?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이겨내기 위해

남에게 한마디 말씀은 했을 것 같은데요.

쾨벤쾨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입회하고 로마에서 수학한

막시밀리아노 젊은 수도사제로서의 삶은

프란치스코 성인과 그 성인들의 삶을 옮기는 듯이 보였어요.

반 교회적 비밀 결사단(프리메이슨)과

악의 세력 루치펠에 싸워 맞서는

‘원죄 없으신 성모기사회’ 설립은

성령의 은사를 입으셨어요.

폴란드 니에포칼라노프 ‘성모마음’ 공동체 건설과

‘성모기사’ 잡지간행을

멸망하는 영혼을 구하는 전교의 수단으로 쓰신 것은

주님의 섭리이었지요?

역경을 이기고 10년 만에 800명의 수사와 함께 완성한

안전한 ‘성모마음’ 공동체를 뒤로 하고,

선교를 위해 미지의 세계 동양의 일본을 향해 떠나셨지요.

‘삼으로 달을 치는 격이다’ 라는

무모함의 비판을 뒤로하고 떠났어요.

제가 전체의 반의 반만 유지하는 육신으로

열악한 일본 환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선교활동과 ‘성모마음’ 건설과 ‘성모기사’ 발행 등
일본 가톨릭교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또 다시 인도로 선교를 떠났지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 나라 건설에 대한 의지는
초능력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성인의 말씀이 크게 들려오네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일에 바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양심이 다시 자리 잡아 형제들과 함께 정진했다.’

‘제일 먼저 자신의 영혼을 성모의 것으로 내어놓으세요.
그리하여 성모께 이끌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의 영혼을 현재와 미래의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성모의 손에 성모를 위해 그들을 구하는 것이다.’

‘성모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께 향한 사랑이
바로 성모님의 그 사랑만큼이나 완전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극치요, 우리 목표의 절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느님의 최대 영광을 위하여.’

폴란드에 귀국하여 성모마음 공동체 원장으로, 성모기사 발행인으로,
유대인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숨겨주고, 도와주는,
폴란드에서 영향력이 지대한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콘베 신부는
독일군들에 의해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잡혀 들어갔어요.

아사 감방에서 죽게 되는 젊은 사람을 대신하여
‘저 사람 대신 내가 죽겠다’ 하시고
다른 이들의 죽음과 함께하셨어요.
사제로서 그들을 천국으로 이끄셨어요.
‘우리는 곧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최후까지 죽지 않자 강제로 독극물 주사에 죽임을 당하셨지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실천으로
원죄 없으신 성모님으로부터
순결의 흰색 관과 순교의 붉은색 관을 받으셨어요.

1982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시성을 하셔서
성인 반열에 오르셨지요.

당신은 프란치스코 성인을 닮으셨어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셨어요.
‘성모의 종’ 이십니다.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콘베 성인이지여,
당신을 따라서 성모기사회 회원으로서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도록
저희를 도구로 완전히 써주시도록 전구하여 주소서.

원죄 없으신 성모님,
성모님을 통한 구원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이끌어 주시어
성모기사회 사도직을 수행하는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들이
평화의 열매를 맺게 이끌어 주소서.

아멘.

말씀묵상

최창원 니콜라오

“마리아님, 천사들의 무리 위에 높이 오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개선하셨나이다.”
(성모 승천 대축일 전야미사 입당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입당송)

간장종지 화가

몰카

박영철 요셉

창밖에는
강아지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
새의 노래 소리가 들려 온다.

성당 안에는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
쿵쿵쿵 기침 소리.
배고픔을 알리는 “꼬로록” 소리.

눈꺼풀은 무거움을 느끼는지
고개는 마냥 곤두박질을 한다.
넋끼에서 이 모습을 보시고
“아들아! 잠시만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니” 라고 하시겠지.

부스러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살며시 눈길을 돌려보니

장미가 손에 들려 있다.

하늘 엇마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님과 대화를 해야 한다.

오늘도 님께 감사드리고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자.

기차 안에서의 인연, 그리고 히말라야

신재희 베드로

다음날, 기차 안에서 눈을 떠보니 아래층에서는 벌써 부지런히 침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앉을 의자로 개조하기 위해 3층 침대칸에서 내려와 익숙하게 자리를 만들고 드디어 수녀님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어찌나 반가웠던지 수녀님 허리의 흰 끈을 가리키며, “프란치스코이세요? 반가워요, 수녀님!” 이 말에 도리어 놀라셨는지 반신반의하는 눈치로 인도말로 말을 거시는데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한국에서 왔어요. 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예요!” 메모장에 스펠링까지 써가며 ‘OFM Conventual’이라고 써서 보여드리니 그제야 케랄라에 있는 인도 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언급하시면서 반가워하셨다.

수녀님께서서는 자신은 글라라 수녀회 소속이라고 소개하셨다. 프란치스코 가족 2회인 글라라 수녀회는 봉쇄수녀회인데, 어떻게 봉쇄 밖으로, 그것도 지원자 자매들까지 데리고 나오셨을까... 그때부터 쉼 새 없이 수녀님께 질문하였다. 수녀님께서서는 친절하게 내가 알아듣기 쉽게 영어로 설명해주셨다.

내가 이해한 바로는 수녀님께서 소속되어 있는 수녀회는 프란치스코 성인과 글라라 성녀의 영성을 따르는 인도 방인 수녀회이다. 정식 명칭은 프란치스칸 클라리스트 수녀회(FCC: Franciscan Clarist Congregation)로 인도에서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들로부터 시작하여 수녀회로 창설되었다고 한다. 엄밀히 따지면 클라리스트 활동수녀회인 것이다. 아주 흥미로웠다. 이제까지 글라라 수녀회는 봉쇄 수녀회만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과 글라라 성녀의 영성을 따르는 수도회들을 프란치스칸 가족 3회라 부른다.

수녀님께서서는 인도의 첫 번째 성녀인 알폰사 수녀님이 클라리스트(FCC)수녀회 소속이라고 하셨다. 내가 다녀왔던 한인성당의 주보 성녀이었던 알폰사 성녀를 수녀님을 통해서 다시금 알게 되었다. 함께 기차여행을 하면서 인도와 수녀회에 대해서 알아가는 만남이었다. 그리고 수녀회 입회를 준비하는 두 자매와 함께 여행할 수 있어서 기뻐다. 이런 만남을 가지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수녀님과 동행한 두 자매는 16살, 17살이었는데 갓 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나 수녀회 입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앞으로 이 기차를 타고 인도의 동북쪽 아쌈 지역을 지나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사이에 있는 마니푸르라는 지역으로 간다고 한다. 그 길고 긴 여정 동안 아무 탈 없이 무

사히 도착하길 기도하며 두 자매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수도생활 여정 안에서 성모님을 통한 주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드렸다.

다르질링의 마더 데레사, 콜카타의 마더 데레사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콜카타를 지나서 왔었다. 인도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 콜카타의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살아생전 가난한 이들과 임종을 직전에 둔 이들을 보살피신 곳이 콜카타이다. 기차가 그곳을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 수녀님께서 다르질링으로 가는 나에게 이야기 하나를 해주셨다.

다르질링은 인도 콜카타의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 로레토 수녀회에 있을 때 수련을 받은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다르질링은 마더 데레사 성녀와 깊은 연관이 있다. 연피정 참석차 다르질링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데레사 수녀님은 스스로 후에 ‘부르심 속의 부르심’이라 묘사한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한다. 수녀님은 가난한 사람들 속에 살며 그들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소명을 들은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황청의 특별한 허락을 받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

주) 캘커타는 영어식 이름이며, 2001년 1월 이후 현재 공식 명칭은 전통 명칭인 '콜카타'(Kolkata)로 쓴다.

는 수도자로 살 수 있게 된다. 전통적인 서구식 수녀복장이 아닌 인도 여성들이 평상복으로 입는 사리에 파란색 줄 무늬를 하나 넣은 것을 수도복으로 택하고, 기초 간호학을 이수한 후 콜카타의 빈민가로 향하여 임종을 눈앞에 둔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시작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마련해주신 시간

수녀님께서서는 이야기를 해주시며 고맙게도 매 끼니마다 싸 오신 도시락과 과일을 (부족한 양인데도) 나눠주셨다. 기차가 정차하였을 때 들어오는 상인들에게 음식을 사서 먹으려 하였지만, 수녀님께서서는 그런 음식들은 잘못 먹으면 탈이 난다며 당신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로 끼니를 챙겨주셨다. 부족하지만 든든하게 먹을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달리는 기차 안에서 눈을 떠보니 아침 6시였다. 밤새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억지로 잠을 청했기에 피로가 풀리지 않은 느낌이었다. 내가 탄 기차 칸은 비교적 낮은 등급의 자리여서 창문이 없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편하게 가겠다고 에어컨이 나오고 창문이 있는 기차 칸에 탔다면 수녀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수녀님께서 나에게 곧 있으면 ‘뉴잘패구리’에 도착한다고 친절하게 알려주셨다. 내 목적지인 ‘다르질링’으로 가려

면 다시 산악열차를 갈아타야 하는데 지금 시기는 만년설의 눈이 녹아 지반이 불안전하여 산악열차는 운행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또 배고플 때 먹으라며 과일을 싸주셨다. 1박 2일 함께 지내는 동안에도 끼니마다 먹을 걸 나누어주셨는데...

수녀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었기에, 한인 성당을 나설 때 신부님께서 경비에 보태라며 주신 인도 루피가 있어 500루피를 꾸깃꾸깃 접어 손에 쥐어 드렸는데 한사코 받지 않으셨다. 나보고 가난한 여행자라며 가난한 여행자가 주는 돈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셨다. 대신 수녀님의 안전한 여행과 수도회 입회를 준비하는 두 자매를 위해 기도하기로 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인도여행에서 프란치스칸 가족으로 만난 이때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할 것이다. 그나저나 수녀님과 두 자매의 이름을 묻지 못했다. 그냥 그 모습과 그 순간을 기억하고 기도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은 어떠한 확률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느님 계획 안에 있다.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만남을 알아차렸을 때 그것을 인연이라고 부르는 건지도 모른다.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느님의 계획은 언제나 그렇듯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준다. 히말라야산맥의 품속으로 가는 이 순간 수녀님과 두 자매와의 만남을 통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는다. 두 다리로 힘차게 대자연의 품속으로 거닐어 보리라.

기차 안에서 작별인사를 나누고 ‘뉴잘패구리 역’에 내렸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이동할지 알아봐야 했는데 콧수염을 기른 역무원에게 길을 물어보니 수녀님 말씀대로 산악 열차는 운행을 중단했다. 다르질링으로 가려면 역 밖에 있는 지프차를 타고 가야 한다고 하였다.

“금강산도 식후경, 아니 히말라야산도 식후경!” 히말라야의 품속으로 가기 전 식당에 들러 에그커리(달걀이 들어간 인도카레)를 시켰다. 우리 돈 800원이면 밥과 커리에 반찬으로는 자색양파와 매운 고추까지 곁들여 먹을 수 있다. 쟁반에 담겨온 음식을 능숙하게 손으로 비벼 먹고 있자니 종업원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종업원은 커리가 부족해 보였는지 한 국자를 더 떠 오더니 내 쟁반에 부어주고서는 본격적으로 내 옆에 의자를 갖다놓고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였다.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북한 사람이냐, 남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다. 그 질문으로 시작하여 왜 이곳에 왔는지, 결혼은 했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등등을 묻는다.

내 소개를 하고 식당 아저씨에게 여행에 대한 정보를 얻고 배도 든든히 채우고 식당을 나섰다. 아저씨에게 들은 대로 걸어가 보니 지프차가 몇 대 서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었다. 9인승 지프차가 여행가는 가족까지 포함해서 12명을 태우고 다르질링으로 향했다.

히말라야의 품속으로...

히말라야는 세계의 지붕이라고 일컬어진다. 인도의 고대어 산스크리트어로 히마(눈) 알라야(보금자리)의 합성어로 ‘눈의 보금자리’라는 뜻이다. 신생대 초기(약 7천만 년 전)에 인도는 큰 섬나라였다. 그런데 이 인도판이 점차 북상하면서 아시아대륙과 합쳐져 융기한 산맥이 히말라야다. 인간의 시선으로 본다면 전혀 알아볼 수 없겠지만 히말라야산맥은 아직도 솟아오르고 있다.

인도는 히말라야산맥에서 시작하여 적도에 이르는 역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데 만년설에서 녹아내린 엄청난 물이 여러 강을 통하여 흘러내려 가면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원천이 된다. 인도라는 국명 자체가 인도의 서북부 지역을 흐르는 인더스강에서 유래되었으며 인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명의 하나인 인더스 문명을 잉태한 나라이다.

히말라야를 품고 있는 인도의 지리적 특징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강우량과 만년설, 고온다습한 더위, 끝이 안 보이는 대평원과 심지어 사막까지 대립적 요소들이 공존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도를 더욱더 신비하고 매력적으로 보는 것 같다.

히말라야 속 다르질링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가팔랐다.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끝없이 가파른 산길을 오르다 보니 어느새 하늘에 떠 있는 구름에 가까이 닿아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오르막길이 한참이었다.

산 중턱쯤 지프차가 서더니 작은 구멍가게에서 휴식시간을 가졌다. 벌써 체감 온도가 선선하게 느껴졌다. 분명 산 아래에서는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렸는데, 산 중턱은 쌀쌀한 기온이다. 몸도 녹일 겸 따뜻한 짜이 한잔을 시켰는데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이제 동안 마셔온 짜이와는 다르게 정말 맛이 있었다.

다르질링은 세계적인 홍차 재배지로 손꼽힌다. 해발 2000미터가 넘는 이곳에서 재배된 홍차를 잘 말려 생강과 함께 뜨거운 우유에 넣어 팔팔 끓인다. 그런 다음 설탕을 듬뿍 넣으면 이곳의 짜이, 밀크티가 완성된다. 그 맛을 못 잊어 자판기 커피값으로 이 특별한 홍차 두잔을 마시며 누리는 소소한 행복에 미소가 절로 났다.

다시 지프차에 올라타고 목적지로 향했다. 여행가는 가족들은 다르질링 시계탑까지 간다고 하여 나도 목적지를 그곳으로 정하였다. 사실 다르질링은 과거 영국제국에 의한 인도 식민지 시절의 휴양지였다. 그래서 이곳은 식민통치를 하던 영국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다. 유럽식 건물들이 남아있기에 인도와는 또 다른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히말라야의 품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나를 설레게 하였다.

다르질링에서...

여행을 하면서,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았다. 이곳에 온 목적,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이 순간에 동쪽 히말라야산맥에 올라 그 위로 떠오를 태양을 바라보며 다짐할 것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다가,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에 매료되어 한참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치 나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듯 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다시 그분께 바치는 것, 그것이 하느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아닌가!

끊임없이 한눈을 팔고 금방이라도 지쳐버리려 하는 나 자신을 바라본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쓰시는 하느님의 시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 자신의 나약함에 실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나를 위한 하느님의 뜻이라.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저를 당신 손의 도구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사키에서 수도생활하기

- 소신학교 -

이신형 요셉

웃음을 많이 잃어버리고 아직은 덜 성숙한 얼굴 안에는 알 수 없는 어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래도 아직은 귀여운 부분이 남아 있는 소신학생이 나의 재촉된 물음에 얼굴은 들고 눈은 내리 칸 채 이렇게 나를 몰아붙였다. “성모기사 고등학교로 옮기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만약 제가 정말로 성모기사 고등학교로 옮기게 되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원장신부님이 어떻게 그 책임을 지실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아시시에서 돌아와서 맡게 된 소임은 소신학교 원장이었다. 콜베 신부님이 세우신 소신학교는 제일 많을 때는 180명의 소신학생들이 있었다고 한다. 1960년대 초에 일반학교로 전환했고, 이때부터 일반학생들도 받아 들여 가톨릭 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소신학생들은 성모기사 수도원 안에 있는 성 콜베 지원소에서 생활하며 같은 부지 안에 있는 성모기사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처음부터 한 학년에 한 클래스로 구성된 작은 규모의 성모기사 중고등학교는 몇 년 전부터 중학교 과정을 쉬게 되었고, 고등학교 과정만 남게 되어 부득이하게 중학생으로 입학한 소신학생들은 신언회에서 운영하는 남산중학교

에 통학하게 되었다.

일본관구는 거의 모든 신부님이 이 소신학교 출신이었고, 간혹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입회해서 신부님이 되신 분들이 계실 뿐이었다. 그래서 더더욱 소신학교 출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외국인인 나는 소신학교 원장으로 발령이 날 수 없다고 믿고 있었다. 아마도 내게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기시지는 않겠지라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그런데 소신학교 원장을 맡을 형제가 없었는지, 관구장님은 나에게 소신학교를 맡기셨다. 게다가 성소개발 임무를 덩으로 주셨기에, 양성과 모집이라는 중책을 짊어지게 되었다.

4월, 부임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았다. 그중에 하나가 남산중학교에 통학하게 되면서 소신학교 시간표를 성모기사 고등학교와 함께 맞추는 것이었다. 남산중학교까지 약 한 시간 정도가 걸렸고, 아침기도를 함께하기 위해서는 더 일찍 일어나야만 했다. 그런데 남산고등학교로 입학했던 한 소신학생이 (통상적으로는 남산중학교를 졸업하고 성모기사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했는데, 전임자 신부님의 특별한 허가를 받아 입학을 했다고 한다.) 각종 보충수업으로 인해 저녁식사조차 같이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소신학생들의 양성을 위해서는 적어도 식사는 함께 해야 하고, 기도도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문제가 내 앞을 가로 막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산 고등학교에 다니게 된 소신학생은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가 많아, 취침시간인 23시 이후에도 자습실에 남아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허가를 구해 왔다. 일주일 동안 여러 신부님께 의견을 구하고, 나가사키에 있는 다른 소신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자문을 구했다. 결국 그 소신학생에게 24시까지 자습실에서 남아서 숙제와 공부를 해도 좋다는 허가를 내주게 되었다.

처음 소신학교 원장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내 양성 담당이셨던 신부님께서는 “나는 그 인사 반대다”라고 말씀하셨다. 다감한 시기를 보내는 중고등학생인 소신학생 양성이 무척이나 어렵고, 부딪쳐 나가야 할 문제가 많을 거라는 조언을 주셨다. 사실 그때는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신 것 같은 맘이 들어서였다. 그러나 그 이유를 들어보니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세상의 부모님들이 겪으시는 어려움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다고... 아무런 지식도 경험도 없이 미지의 세계에 무모하게 발을 들여 놓으려 하고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며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허가를 받으러 온 소신학생의 청을 거절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나에게 판단과 허가를 구해 왔다. 특히 경험이 없던 나는 곧잘 허가를 내 주곤 했는데, 한 가지 허가를

해 주면,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해 왔고, 또 그것을 통해 더 무리한 허가를 구해왔다. 어디에서 이 사슬을 끊어주어야 할지 생각해야 했고, 또한 나의 판단이 변덕스럽고, 감정 적이지 않기 위해 무던히 애썼다.

또 아이들의 잘못을 전부 다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야 하는 것들도 있고, 어느 시점에서는 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다. 남산고등학교에 다니 게 된 소신학생이 허락되지 않던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 다가 발각이 된 것이 그즈음이었다. 일반적인 다른 소신학 생들에 비해 공부에 대한 과도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도 마음에 걸렸고, 또 학교가 먼 바람에 양성의 햇빛이 비 추지 못하여 늘 그늘이 존재하는 것도 문제였다. 그렇기에 면담 안에서 성모기사 고등학교로의 전학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끝에 나에게 그렇게 대든 것이었다.

“소신학교는 네가 가고 싶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도와 주는 곳이 아니야. 먼저 좋은 사제, 수도자가 되기 위해 존 재하는 곳이다”라고 따끔하게 못 박았다. 그날 밤 그 소신 학생은 울면서 집에 전화를 걸었고, 깜짝 놀란 학생의 아 버지는 다음날 나를 찾아 와서 자초지종을 들은 후 내게 사 과를 하고 떠나갔다.

매년 6월 두 번째 주일에는 니시큐수(西九州) 재속프란치스코회에서 성소기원미사, 그리고 조출한 파티를 열고 있다. 그 파티에 초대된 소신학생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연극을 하는데 올해는 각본, 연출을 모두 소신학생이 준비했다. 대본을 읽어 봐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콜베 신부님 이야기였다.

콜베 신부님이 현대로 시간을 뛰어 넘어 나타나 소신학생들과 만났는데, 그 만남에서 핸드폰, 인터넷, 컴퓨터 등을 접한 콜베 신부님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 동료 수사님에게 “나에게 할 일이 생겼소. 일본 나가사키에 가서 성모기사 수도원을 세우는 것이요”라는 대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무너져 내린 성당을 고쳤듯, 지금 나가사키 성모기사 수도원을, 우리 수도회를 고치고 다시 세우라는 의미로 내 마음에 와 닿았다. 그리고 그 말이 소신학생 입을 통해 전해진 것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숨결을 느끼는 듯해, 나에게는 이루 말 할 수 없는 큰 감동이 밀려왔다.

유학 생활의 시작, 세라피쿰

권정대 베드로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던 유학 준비 기간을 주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잘 마쳤습니다. 한남동 수도원에서의 마지막 미사와 강론, 공항에서 배웅해주신 형제, 부모님과의 인사를 뒤로하고 로마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만감이 교차하였고, 자연스레 묵주기도를 드리며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부디 당신 뜻이 제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유기 서원 때, 해외 선교 체험 및 영어공부를 목적으로 두 달간 필리핀을 가본 경험 외에는 해외를 나가 본 적이 전혀 없었기에, 로마로 향하는 12시간의 비행은 한없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잠도 자고, 식사도 두 번이나 했는데, 아직인가?’하는 생각을 하고, 한 시간이 지났을 즈음에야 ‘잠시 뒤 이탈리아 로마 피우미치노(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하는 기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방송에 설레면서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주님 도우심으로 로마에서 2년 살고 잠시 한국에 갔다 돌아오는, 옆 좌석에 앉은 친절하 청년이 도와준 덕분에 별 어려움 없이 출입국 심사를 거칠 수 있었습니다. 가져온 짐도 잘 찾아 공항 입구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나서니 멀리서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맞이해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수도회 로마 총본부에서 아시아 총장 보좌(Assistente Generale)이신 백승재 베네딕토 수사님과, 수도회 법적 담당관(Procuratore) 마우리찌오 수사님(fr. Maurizio di Paolo)이었습니다. 처음 로마에 온 저를 위해 몸소 마중 나와 주신 두 수사님,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최소한 인사말이라도 잘 해보자는 심정으로 외운 “Sono molto onorato di incontrarLa(당신을 만나 뵈게 되어 영광입니다)”란 거창한 문장으로 마우리찌오 수사님께 인사드리자 환하게 웃으시며 참 좋아해 주셨습니다. 요즘도 마우리찌오 수사님을 만나 뵈 때면 저를 보고 Onorato! Onorato! (영광! 영광!)라고 하시며 농담하시는데, 첫인상이 강렬하게(?) 남았구나 혼자 생각하며 수사님과 즐겁게 인사합니다.

마우리찌오 수사님의 운전으로 도착한 곳은 선배 수사님들께 이야기로 전해만 들던 세라피쿰(Seraphicum), 수도회 국제 신학원 공동체였습니다. 세라피쿰이라는 말은 여섯 날개 달린 천사 세라피쿰으로부터 주님의 오상을 받으

신 우리 사부 성 프란치스코의 기원에서 유래하는데, 그 일화와 역사에 따른 세라핌 수도회 호칭으로부터 신학원 명칭이 정해졌음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시간이 딱 저녁식사 시작 전이어서, 수도회 원장님, 신학원장님을 비롯하여 70여 명이 넘는 각기 다른 나라의 형제들과 첫인사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내 심정처럼 어두컴컴해진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하는 두렵고 설레는 마음과 함께 이탈리아식 저녁을 먹었습니다.

베네딕토 수사님께서는 간단히 식당과 공동방이 어디인지 알려주시고, 제 방까지 데려다주신 후에, “이제 니 알아서 살면 된다, 알겠제?!” 하셨습니다. 선배 수사님들은 보통 둘 이상 유학 와서 함께 살았는데, 이번에 혼자 이탈리아 유학 온 저로서는 세라피쿰에서의 시작이 막막하기 그 지없었습니다. 총본부로 돌아가시는 베네딕토 수사님과의 헤어짐이 정말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남은 저에게 신학원장 수사님은 베트남 형제 한 명을 소개시켜주며 이 형제를 통해 세라피쿰에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이름이 롱(fr. Joseph Van Long Tran)이라고 하는 요셉 수사님은 세라피쿰 각 장소에 잘 직접 데려가서 보여주며 친절하게 알려

주었습니다. 수도원 소개 후 함께 간 곳은 1층에 있는 특별 주방이었습니다. 이 주방은 각기 다른 나라의 형제들이 자기 나라 음식을 요리해서 먹고 싶을 때 쓸 수 있도록 갖춰진 공간이었습니다.

주방에서 크로아티아 형제 질라트코 수사님(fr. Zlatko)을 처음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세라피쿰에서 먼저 살았던 한규희 보나벤투라 수사님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질라트코 수사님은 팬케이크 요리를 잘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역시나 그 날 주방에서 팬케이크를 만들고 있었고, 저에게 권하셨습니다. 함께 모인 몇몇 형제들, 특별히 아시아 형제들이 많았는데, 팬케이크를 먹으면서 영어로 서로 자기 소개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질라트코 수사님은 앞서 세라피쿰에 머무셨던 보나벤투라 수사님을 비롯한 한국 형제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다음 날 주일 아침 미사를 함께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주일은 보통 외부 성당에 형제들이 가서 미사를 드리는데, 질라트코 수사님과 세라피쿰 수도원 가까이 위치한 한 성당에 함께 가서 미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형제들과 헤어진 후에 세라피쿰에서의 첫날밤을 청하였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시차로 인한 피로 때문에 짐도 다 풀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주일, 질라트코 수사님과 찾아간 곳은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동굴(La grotta delle Tre Fontane)이었습니다. 나중에 새삼 다시 알고 찾아가게 되었는데, 세라피쿰 수도원 근처에는 사도 바오로께서 순교한 장소인 트레폰타네(Tre Fontane)가 있었고, 그 이름과 연관 지어 성모님 발현지 이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자마자 성모님 발현지(La Vergine della Rivelazione)에서 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미사 전례와 강론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였으나,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우리 가톨릭의 미사 순서대로 참여하면서 주님께, 성모님께 앞으로의 삶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세라피쿰에서 삶을 꾸리기 시작한지 3일째 되던 날, 프랑스 형제 토마 수사님(fr. Thomas Bourquerod)으로부터 수도회 총본부에 같이 가 볼 생각이 없느냐는 제안을 받고 흔쾌히 발걸음을 함께 하였습니다. 처음 타본 이탈리아 지하철에서 엄습하는 어두운 분위기는 낯설게 여겨졌지만 함께 길을 떠난 토마 수사님의 친절함에 낯설음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함께 내린 곳은 말로만 듣던 콜로세오(Colosseo)역이었습니다. 나오자마자 눈앞에 펼쳐지는, 처음 보는 콜로세움

의 웅장함에 환성과 감탄을 자아냈던 기억이 납니다. 콜로세움을 처음보고 신기해하는 저를 토마 수사님이 어떻게 봤을지 다시 생각해보면 웃음도 나오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사진을 찍고, 향한 곳은 12사도 성당(Basilica Santi Apostoli)과 함께 있는 수도회 총본부(Curia Generale)였습니다. 출입구에서 토마 수사님은 베네딕토 수사님을 만나러 온 저를 위해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나중에 총본부 앞에서 다시 만나서 함께 돌아가자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베네딕토 수사님은 온 지 3일 만에 총본부로 찾아온 저를 대단히(?) 여기시며 내부를 소개해주셨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후계자, 현 총장인 마르코 타스카(fr. Marco Tasca) 수사님을 만나 인사를 드리고, 베네딕토 수사님의 안내로 사부님과 역대 수도회 총장님, 법정 담당관 수사님들이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크게 감탄을 하였습니다. 수사님과 함께 토마 수사님이 오기 전까지 총본부 근처에 있는 명소들을 잠시 방문하면서 산책을 하고 처음으로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아니 젤라토를 맛보았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총본부로 돌아온 토마 수사님은 같이 공부하는 대구대교구 요한 신부님을 소개시켜주었고, 훗날 요한 신부님의 소개로 지금 다니고 있는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교 영성 신학부 신부님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언어를 배우는 것과 여러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가 각국의 여러 인종과 민족들이 참으로 많이 모여 사는 곳임을 와서 체감할 수 있었고, 체류허가증(Permesso di Soggiorno)이 이탈리아에서 머물 수 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한다는 것을 선배 수사님들로부터 전해 듣고 체류허가증을 발급하는 과정을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을 한 달 다니면서 스리랑카, 케냐, 미국, 독일, 스위스, 에스토냐 친구들과 이탈리아어를 배우게 되었고, 언어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상황과 공부 혹은 일을 위해 이탈리아에 와서 지내는 외국인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체류허가증 발급을 위해 바티칸에 위치한 경찰서(Questura)를 미국인 형제 크리스토퍼 수사님(fr. Christopher Dudek)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 온지 보름이 조금 지난 후 드디어 바티칸을 가게 되었고, 웅장한 성 베드로 대성당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에 와서 지낸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체류허가증 업무를 마치고, 크리스토퍼 수사님은 친절하게도 성 베드로 대성당 방문을 동행해주었고, 영어 설명

을 듣고 내부에 위치한 성 베드로 대성당의 구조와 교황님들의 무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같은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가진 베트남 형제 동 수 사님(fr. Pietro Dong Hoang)과 함께 6월 29일 영명 축일 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집전하시는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대축일 미사를 드리러, 성 베드로 성당에 가는 은총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교황님께서 2014년 8월 한국에 오셨을 때, 필리핀에 있었기에 교황님을 인터넷 방송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지만 불과 몇 년 후 본명 축일 날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님 집전으로 미사를 드릴 수 있다는 현실에 모든 것이 감동 그 자체로 가슴 깊이 스며들어왔습니다. 교황님께서 입당하시는 때에, 사진을 여러 장 찍으며 교황님과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 절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교황님과 함께한 행복한 미사를 드리고 세라피쿰에 돌아오면서,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지만 유학 생활을 주님께서 허락해주셨고, 이끌어주시리라 간절한 마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세라피쿰에서 살면서 세라핌 수도회를 창설한 우리 사부 성 프란치스코를 본받기 위한 여정은 혼자가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나의 부족함과 결핍이 채워지고, 나 또한 형제들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야함을 느끼게 됩니다. 각기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과 인연을 통해 하느님의 손길과 보호하심이 진정 저와 함께하고 계심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소서”라는 평화의 기도문처럼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형제들과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서 유학 생활동안 더욱 커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기도합니다.

포르치온쿨라 전대사를 위한 미사

일시 : 8월 2일 목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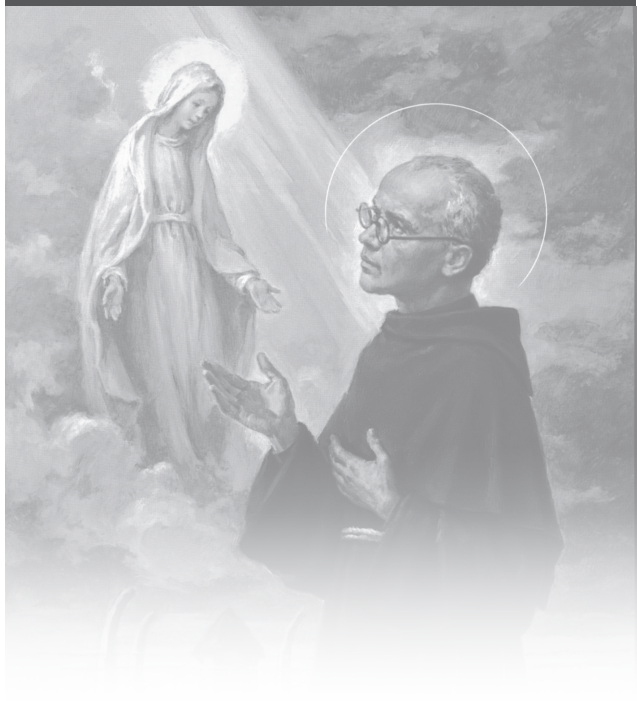
장소 : 한남동 수도원 안토니오 교육관

일정 : 오전 9시 고해성사, 10시 반 미사

문의 : 02-793-2070



‘콜베의 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북부지역 (양평 콜베 마을)

8월 14일 (화) 저녁 7시 031-771-6138

- 남부지역 (대구 프란치스카눔)

8월 14일 (화) 저녁 7시 053-636-7427

제주지구 소식



6월 2~3일 주말에 성모 기사회 위원장 구원모 콜베 수사는 제주지구 회원들을 방문했습니다. 2일 토요일에는 제주 동문 성당 모임, 3일 주일에는 광양 성당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주지구 성모기사회는 과거 제주교구 15개 본당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한 교구 내 최대 규모의 성모신심 단체였습니다. 그 영향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아 제주교구 성모신심 회원들 모두가 모여서 참석하는 첫 토요일성모신심 미사가 매달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향으로 제주지구 기사회원들은 성모

신심미사가 아니라 성모기
사회 기도 모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프
란치스코 수도회 초창기에
순회설교를 다닌 형제들이
언제든지 돌아와서 영육 간
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보
금자리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 제주지구를 모델로 하여 미사 없이 할 수 있는 성모
기사회 모임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임 양식은 개인적
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모기사회의 활동이 어디까지 뻗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줬고, 현재는 성모기사회의 본질이 성모님
과 함께하는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제주지
구 기사회원들에게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통한 주님 은총
이 늘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성모기사회 모임 순서

1. 성모님 성가
2. 칠락 묵주 기도 - 개인 또는 공동 지향을 넣을 수 있음
3. 성모 성심 봉헌문
4. 말씀의 전례 - 매달 신심 미사
(1) 독서 낭독 (2) 화답송 (3) 복음 환호송 (4) 복음 낭독
5. 말씀나누기 또는 생활나누기
- 주제는 독서와 복음 또는 성모기사지에서 택함
6. 주님의 기도
7. 새 회원 소개
8. 축일자 축하
9. 경리 보고

10. 기타 토의

11. 성모님 성가

* 순서 5,6번 사이에 5월은 새 회원 봉헌식,
12월은 새 회원 봉헌식과 기존 회원 봉헌 갱신식을 함

성모기사회 개인기도 방법

1. 성모님 성가

2. 칠락 묵주 기도

3. 성모 성심 봉헌문

4. 말씀의 전례 - 매달 신심 미사

(1) 독서 낭독 (2) 화답송 (3) 복음 환호송 (4) 복음 낭독

5. 묵상 - 주제는 독서와 복음 또는 성모기사지에서 택함

6. 주님의 기도

7. 성모님 성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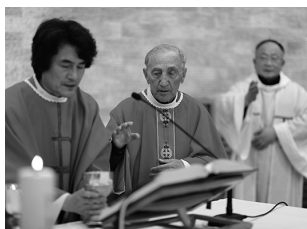
황만용 마리오 신부님 송별 미사



2018년 6월 11일 오전 10시 30분 한남동 프란치스코 수도원에서 황만용 마리오 신부님의 송별 미사가 있었습니다. 55년간 타국에서 선교활동으로 일생을 헌신하시고 6월 14일 이탈리아로 귀국하셨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열정과 사랑에 대해 보답해 드릴 수 없겠지만, 늘 우리 마음 속에 신부님을 기억하고 또 기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황만용 마리오 신부님 약력〉

P. Mario Fabrizi

(Nome coreano: Man-yong Hwang)

생년월일 Data di nascita:

1933.09.12

유기서원 Professione

temporanea: 1954.07.25

종신서원 Professione solemn: 1957.11.01

사제서품 Ordinazione sacerdotale: 1961.03.12

아시시의 선교사 양성 신학교 출신 사제 Crociata
Missionaria Franciscana



1963.01.04 한국 입국, 부산 대연동성당 보좌신부

1964.01 ~ 1965.05 대구 범어성당 보좌신부

1965.05 ~ 1968.03 대구 범어성당 주임신부

1969.12 ~ 1970.11 부산 대연동성당 주임신부



- 1971.03 선교지 장상 임명, 부산 대연동성당 보좌, 부산
일광 삼덕 공소 사목
- 1974.11 선교지 장상 유임
- 1975.12 ~ 1978.12 첫 준관구장으로 선출, 부산 성 안토니
오 수도원 원장 겸임
- 1978.12 ~ 1982.01 준관구장 유임, 부산 성 안토니오 수도
원 원장, 프란치스코의집 원장 겸임
- 1982.02 ~ 1984.12 부산 예수 마리아 성심 수도원 원장
겸 기장성당 주임신부
- 1984.12 ~ 1987.11 부준관구장, 부산 성 안토니오 수도
원 원장, 프란치스코의집 원장, 오륙도 준본
당 사목
- 1987.11 ~ 1990.10 부산 성 안토니오 수도원 원장, 프란치
스코의집 원장, 오륙도 준본당 사목
- 1990.10 ~ 1994.01 부산 성 안토니오 수도원 원장, 프란
치스코의집 원장
- 1994.01 ~ 1996.11 부산 프란치스코의집 원장, 오륙도 상
애원
- 1996.11 ~ 2000.11 부산 예수 마리아 성심 수도원 원장,
오륙도 준본당 사목
- 2000.11 ~ 2001.06 부산 기장성당 주임신부
- 2001.11 ~ 2004.11 통진 프란치스코집 원장
- 2004.11 ~ 2017.01 통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수도원 거주
- 2017.01 ~ 2018.06 부산 성 안토니오 수도원 거주



**새 주소(도로명주소)로 바뀐 후
기사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사를 받지 못하신 경우
사무실에 도로명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 주소는 집에 오는 다른 우편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금을 자동이체로
신청해 주세요.**

- 1) 은행에서 후원금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하기
거래하시는 은행 방문 → 후원금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
→ 사무실 전화 (자동이체 신청 알림)
- 2) CMS 자동이체 신청하기
사무실 전화 (031-771-6134) → 자동이체 신청

성소후원회

수도회의 수도자 양성과 교육을 위해 도움을 주실
벗을 기다립니다.

● 후원 계좌 안내

예금주 : (재) 천주교 끈벙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 한 : 140-002-932457

국 민 : 026-01-0344-810

지 로 : 7620247

해외 선교 후원회

해외 선교를 위한 수도회의 역할과 사명에 함께하
실 벗을 기다립니다.

● 후원 계좌 안내

예금주 : (재) 천주교 끈벙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 한 : 140-009-830476

농 협 : 301-0116-9633-21

국 민 : 295401-01-183491

프란치스코의 벗 미사

은인들과 관심 있는 모든 분이 함께하는
감사와 나눔의 시간입니다.

- 대 상 : 성소후원회원, 해외선교후원회원, 성모기사회원
재속프란치스코회원, 일반 신자
- 내 용 : 미사 전 칠락묵주기도와 고해성사
미사 중 프란치스코 영성 강좌 및 양형영성체
미사 후 성인유해 축복 또는 안수기도

● 미사 안내

지 역	장 소	시 간	월모임	전 화
대 구	월배 성당	오후 7:30	둘째 화	053-636-1302
부 산	대연동 성당	오전 10:30	둘째 수	051-622-0635
	기장 성당	오후 7:30	둘째 수	051-721-2273
서 울	한남동 수도원	오전 10:30	셋째 월	02-793-2070
인 천	갈산동 성당	오전 10:00	셋째 토	032-513-4601

● 성소모임 안내

담 당 : 홍민용 알로이시오 신부

대 상 : 중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 미혼남성

남부 모임 / 대구 : 월배 수도원

(053) 636-7427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4시)

북부 모임 / 서울 : 한남동 프란치스코 수도원

02) 793-2070 (매월 둘째 주일 오후 2시)

성모기사회 미사 · 월모임 안내

지 역	월 모 임	시 간	장 소	연 락
대 구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프란치스카눔(월배 수도원 뒤)	053-636-7427
	셋째 토요일	오후 7:00	프란치스카눔(작은 꽃모임)	
	넷째 주일	오후 2:00	월배 수도원(7080 젊은이 모임)	
대 전	둘째 토요일	오전 10:00	대흥동 성당 (1층 정당)	042-256-6562
부 산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기장 성당	051-721-2273
		오전 11:00	대연동 성당	051-622-0635
	첫째 주일	오후 12:00	대연동 성당(작은 꽃모임)	051-622-0656
부 천	셋째 토요일	오전 10:00	중1동 성당	032-325-0342
서 울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한남동 수도원	02-793-2070
수원 · 안양	넷째 토요일	오전 10:00	매교동 성당	031-233-7185
양 평	첫째 토요일	오전 11:00	양평 수도원	031-771-6138
인 천	첫째 토요일	오전 10:00	갈산동 성당	032-513-4601
전 주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효자동 성당	063-223-3821
		오후 7:00	효자동 성당(작은 꽃모임)	
제 주	첫째 주일	오후 12:00	광양 성당	064-753-4498
	첫째 토요일	오후 5:00	동문 성당	064-757-8866
미 국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토랜스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	1-310-380-4647
호 주	둘째 화요일	오전 11:30	멜버른 한인성당	61-422-673-889

※고해성사 및 묵주기도는 미사 30분 전부터 있습니다.

● 후원금 안내

이 책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지는 순수 종교 잡지입니다. 학교, 병원, 회사, 복지 시설 등으로 무료 배포되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모든 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한 미사와 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지로번호

7529076

● 자동이체 할 때 (사무실로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예금주 : (재) 천주교 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국 민 : 031601-04-200636

농 협 : 317-0007-3146-21

신 한 : 140-012-038430

우 리 : 1005-803-349775

우체국 : 102566-01-005494

하 나 : 274-910011-99204

● 해외에서 송금할 때

Bank Name(은행명) : Hana Bank

SWIFT CODE : KOEXKRSE

Address(주소) : Seoul Korea

Account(계좌번호) : 274-910011-99204

Beneficiary(수취인) : Order of Friars Minor Conventual

성모님의 마음을 담은

성모기사

등록번호 : 경기 라 00521

2018년 8월 통권 499호

발행인 : 정진철

편집인 : 구원모

편집장 : 윤지영

편집위원 : 이상태, 이유리, 한규희

편집 : 기획 - 김영태, 안춘옥

사진 - 이신형

인쇄 : 명 조

발행처 : 재단법인 끈뎀두알 프란치스코회

성모기사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6가길 35

(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5-92)

우편번호: 03067

전화 : 02-745-6134 (사무실)

팩스 : 02-745-6135

홈페이지 : ofmconv.or.kr

전자우편 : mikorea@catholic.or.kr

“당신은 고요하시나이다.”
(하느님 찬미 8)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회
"마리아처럼,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와 함께"